KDA 홈페이지
치협, 회원간 살아있는 가교 역할

이 영 식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치과정보통신협회 부회장
dent004@chollian.net

1.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인구의 45%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은 신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TV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자료를 꺼내볼 수 있는 등 인터넷의 기능은 실로 막강하다.

인터넷의 기능에는 E-mail(전자우편), WWW(월드와이드웹), Telnet(원격접속), FTP(파일전송), Usenet(유즈넷-특정 주제에 관한 토론), 정보검색(Archie, Gopher, WAIS, Veroneca 등), 상대편 검색, IRC(실시간 대화), MUD(실시간 원격 게임) 등 크게 9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의 새로운 기능은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일반이용자들에게 사용상에 있어서 편리성을 최대한 제공해 주고 있는 등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역할 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파워-게시판일 것이다. E-mail과 게시판 기능은 전통적으로 컴퓨터통신의 핵심이었다. 특히 게시판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되어 게시판에 어떠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지가 매일매일 여러 네티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게시판상의 논의는 때로 논쟁을 넘어 과열되기도 하지만, 게시판은 상호의견교환에 있어서 새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최적의 도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KDA 홈페이지의 여러 메뉴중에서도 게시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KDA 홈페이지의 현주소(주요메뉴)

KDA 홈페이지의 구성은 크게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나뉜다. 영문판의 주요메뉴에는 Korean Dental Association, Dentistry of Korea, Information About Korea, APDC 2002 Seoul, Membership Registration, Board, Link, E-mail, FDI 1997 Seoul 등이 있고, 한글판의 주요메뉴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각시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치의신보, 치과의사를 위한 정보, 환자를 위한 정보,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장애인치과진료구강보건, APDC 2002 Seoul, 회원등록, 게시판, 구인구직·매매, 추천사이트, 회의실, E-mail, FDI 1997 Seoul 등이 있다.

정보의 양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감이 들지만, 구성 면에 있어서는 짜임새를 갖춘 듯하다. 특히 게시판의 쓰임새(게시판, 치의신보 게시판, 구인구직·매매, 치과의사 전용 게시판, 보험 Q&A, 각시도치과의사회 게시판 등)에 있어서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KDA 홈페이지는 출발이 다소 늦어서 1996년 7월에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4회(1998년 6월, 1999년 8월, 2000년 3월, 2000년 11월)에 걸쳐 대폭 개편되어 왔기에 어느정도 수준있는 페이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시판을 포함하여 여러 메뉴를 관리하는 데에는 시간, 비용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치협 홈페이지는 정보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치협 전체의 간판이다"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아낌없이 투자코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항상 좋은 결과만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단체나 홈페이지의 중요성 특히 메뉴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KDA 홈페이지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편코자 열심히 준비·연구하고 있다.

3. KDA 홈페이지가 가야할 길

치협 정보통신위원회 회의(2000년 10월)에서 논의되었던 KDA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는 게시판 관리 철저, 추천사이트의 체계적인 관리, 치의학 상식의 집대성, 진료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DB 추가,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계몽사업 등이 있었다. 그리고 KDA 홈페이지 발전방안 토론회(2001년 4월)에서 논의되었던 KDA 홈페이지 발전방안에는 일반인을 포함한 대중을 위한 정보 강화, 언론 홍보용 자료 강화, 정보습득 관련 교통정리 철저(추천사이트 관리 등) 등이 있었다.

논의되었던 KDA 홈페이지 발전방안들은 크게 '기존 정보의 심층화', '타켓(접속자) 욕구충족의 확장'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치과의사를 위한 정보는 강화되고, 치과의사가 아닌 외부인(환자, 일반인, 교사, 기자 등)을 위한 정보는 현재보다 현격히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 치과의사를 위한 정보는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가고 있다. 2001. 4. 3일부터 '보험 Q&A' 게시판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고, 홈페이지 논문 입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몇개월 후에 기창덕박사 편저의 한국치과의사 논문 총취 제1집(1948~1980) 및 제2집(1981~1986)이 입력되면 저자, 제목, 초록, 간행년도 등으로 '논문 검색'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치협 공보·기획·정보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할 '사이버 홍보' 메뉴는 빠르면 2001년 6월부터 운영될 것이다.

사이버 홍보 메뉴에는 KDA 홈페이지에 등록한 모든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1차 목표는 치과의료 관련 여론 수집, 회원 참여 확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이고 더 나아가 정부 및 유관단체의 정책에 치과의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사이버 홍보 메뉴속에서 많은 부분이 창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치과계 내부의 의견조율, 대국민 홍보 자료의 강화, 언론기관에의 보도자료 강화 등 지금까지 미약했던 의사전달 과정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막강한 매체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KDA 홈페이지의 발전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뉴 개발을 하나 하나 이루어가고 준비해가는 과정속에서 서서히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또한 회원들의 참여 및 관여가 늘어날수록 KDA 홈페이지는 매일매일 새롭게 발전되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부 환경의 발전(메뉴 개편 등)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외부 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말해 KDA 홈페이지의 발전은 단순히 홈페이지상에 있어서 메뉴의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원들이 보다 쉽게 KDA 홈페이지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노력까지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요즈음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관련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간지/주간지/월간지는 물론이고 치과 관련 주간/월간지에서도 많은 인터넷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때로는 심층보도를 하고 때로는 관련 정보를 나열하기에 그치기도 한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매달 치의신보에 Internet 심층정보 및 상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는 유익하지만 일반 회원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또다른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마도 홈페이지 발전방안에 관한 10가지 말보다 회원 한명 한명이 직접 KDA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는 것이 크게 보탬이 될 듯하다.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KDA 홈페이지의 앞날은 더 밝다고 생각된다. KDA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임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며…